

# 박보영 전 대법관, 고향 판사 꿈 '먹칠'

고향에서 '시골 판사'의 뜻을 펴기 위해 전남 순천에 9월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10일 광주 지방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첫 출근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기다리고 있던 민주노총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집회와 향의를 뒤로하고 도망치듯 법원 집무실로 향해 고향 판사의 꿈은 첫 출근길 부터 얼룩졌다

박보영 전 대법관은 공무원 출근 시간을 넘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여수시법원에 도착했다

박 전 대법관은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병원 경호 인력의 보호를 받으며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앞 해고 노동자들은 화성기와 구호를 외쳤으며 법원앞마당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은 경호 인력 간 심한 몸싸움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법관이 잠시 중심을 잃기도 했으나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의 여수시법원 첫 출근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전 8시부터 쌍용차 해고 노동자 40여명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박 전 대법관의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판결 파기환송 등 사과를 요구했으며 양승태 대법장과 재판거래 의혹 등을 제기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박 판사가 지난 과오가 있음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고 싶어서 왔다"면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를 만나 달라"고 호소했다

이러 "인생 2막을 시골 판사로 법의 혜택을 보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살겠다며 지켜온 전 관 예우를 끊고 꽃길을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표 3명을 꾸려 박 전 대법관과 면담을 요청하고 2시간가량 집무실 앞에서 기다렸으나 끝내 만나지 못하고 강제 퇴거 조치당했다

박보영 전 대법관은 해고 노동자의 면담 요청 및 언론 인터뷰를 거절하고 출근 수 시간 만에 법원 직원을 통해 간략한 메시지만 전달했다

박 전 대법관은 "고향 쪽에서 근무하게 돼 기쁘다. 초심 잃지 않고 1심 법관으로서 소임 다하겠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1월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 모(당시 41세) 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

## '시골판사' 자처해 10일 여수법원 첫 출근

### 쌍용차 해고노동 등 '판결 항의'에도 침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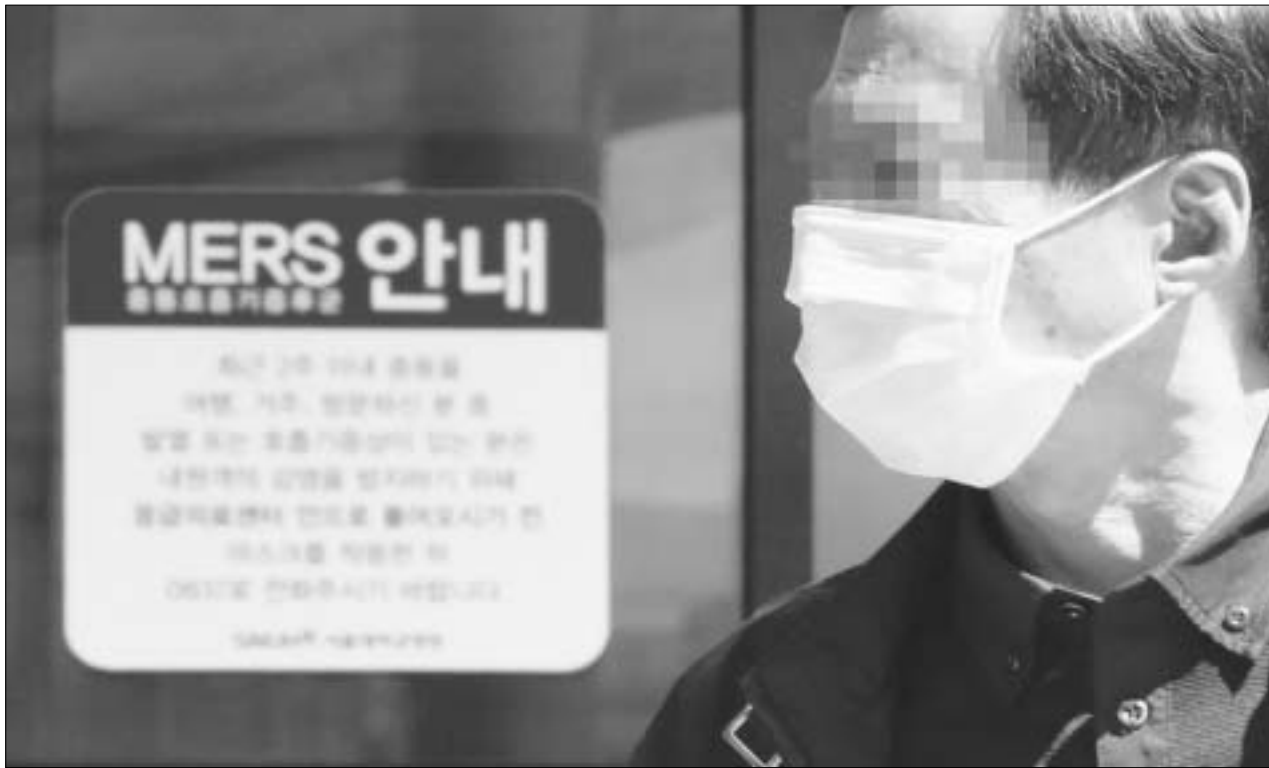
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같은 해 8월 역시 철도노동

파업 사건에서 노조 업무방해 1·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1월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다시 찾아온 메르스 3년 만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10일 서울 중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마스크 쓴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 "광주 접촉자, 메르스 확진자와 직장동료...귀국길 옆좌석 앉아"

국내에서 3년 만에 중증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지역 접촉자가 확진자와 직장 동료로 귀국할 당시 확진자의 옆좌석을 이용했던 확인됐다

광주시는 10일 메르스 관련 브리핑을 통해 "광주지역 밀접접촉자 A씨가 입국 당시 쿠웨이트에서 두바이까지 메르스 확진자 B씨의 옆좌석(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둘은 직장 동료"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두바이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기에서는 각자 등급이 다른 좌석에서 거리상 떨어져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밀접접촉자는 환자와 2m 이내 긴밀하게 접촉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사람 또는 환자의 분비물이 접촉된 사람을 말한다

A씨는 현재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진 않고 있지만 민일의 상황에 대비해 자택 격리중이다. 시는 메르스 감염군의 잠복기가 짧게는 수일, 길게는 2주일에 이르는 점을 감안, 발열이나 기침,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A씨 등은 쿠웨이트 현지 근로자들의 근무상황 등을 점검하고 잠시 귀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 메르스 환자와 같은 항공기에 탑승한 A씨가 확진자와 근거리에서 지난 밀접접촉자로 확인돼 자택 격리중이고,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 능동감시를 통해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8시 행정안전부장관 주제로 열린 '메르스 대응 지자체 상황점검 영상회의'에 참석, 지역별 대응 상황 등을 공유했다

이어 오후에는 관내 의료기관과 경찰, 소방,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회의를 갖고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현재 5개반 30명으로 구성된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한편 전남도도 일부 접촉자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비상 체제를 가동했다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발생한 메르스 감염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전남 거주자는 20대 여

성 1명과 50대 남성 1명 등 모두 2명이다. 이들은 메르스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50대 남성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직장이 전남지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2명을 일상 접촉자로 분류하고 건강 상태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감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국가 지정 격리 병동으로 옮기기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도 관계자는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아직까지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민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증상이 발견되면 곧바로 격리병동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중증지역 여행 후 2주 이내 발열이나 기침, 호흡기 증상 등이 발견되면 의료기관으로 가지 말고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은홍 기자

## 50대 여수해경, 함정서 훈련중 다리 절단

여수해양경찰서 방제정에서 훈련 중 해경 직원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분께 여수시 오동도 북서쪽 3.3km 앞 해상에서 450급 방제정(승선원 14명)에서 훈련 중 박모(57) 주무관이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박 주무관은 서해청 주관 하반기 2일 차 해상종합훈련을 위해 양묘기(배의 닻을 잡아 올리고 풀어 내리는 장치) 작동 중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해경은 해경구조대 구조정을 이용해 박 씨를 여수의 한 병원으로 옮겨 긴급 수술을 진행했다

박 씨는 긴급 복합 수술을 마쳤으나 의식이 혼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밤바다 보려고' 차량 4대 훔친 10대들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여수에 놀러가기 위해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닌 혐의(특수절도)로 A(17) 군 등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군 등 6명은 지난 5일 오전 2시4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문이 열린 채 주차된 SUV 승용차에 들어가 차량 내에 놓인 스마트폰을 훔치고 달아나는 등 4일부터 7일까지 광주·여수·광양 등지에서 차량 4대를 훔쳐 탄 혐의다

또 A 군 등 2명은 무변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가출청소년인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차량털이에 나섰다

이들은 경찰에 '여수 밤바다를 보고 싶었다. 타고 갈 차가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 아파트 재활용 창고에 불 지른 2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10일 아파트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22)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48분께 광주 북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창고에 전단지와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이 불로 창고 120㎡ 가량이 타거나 그물러 소방서 추산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적장에 2급인 A씨는 경찰에 "다음부터 불을 지르지 않겠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센터에서 생활하던 A씨는 지난 3월부터 사회 적응 훈련을 위해 이 아파트에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주운 전단지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 후사경 안 접힌 차량만 턴 4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새벽시간대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턴 혐의(절도)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 북구 일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8대에서 현금과 노트북, 담배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이 문이 잠겨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 수사 받던 교도관 숨진 채 발견

검찰 수사를 받던 교도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6분께 전북 익산시 동산동의 한 정자에서 교도관 A(45)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동산동 마을 주민은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에 외상 흔적은 없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재소자 B씨에게 금품을 받고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료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농에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